

접촉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코드변환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 찬 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이루어질수 없고 사회가 발전할수 없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26페이지)

오늘날 세계에는 수천여개의 민족어, 종족어들이 존재하고있으며 이 민족어, 종족어들은 서로 호상 접촉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오고있다.

언어접촉현상은 인류의 발전사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연구도 심화되어 진행되고있다.

코드변환은 접촉언어학에서 연구되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2중언어사회나 다수언어사회에서 코드변환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단일언어사회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코드변환이란 2중언어사용자들이나 2중방언사용자들이 한번의 발언이나 대화에서 둘 이상의 언어 또는 방언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문법적 및 어휘적요소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두 언어코드의 요소들을 병렬로 놓는 기준은 코드변환의 전제조건으로 된다.

코드변환을 할 때 2중언어사용자들이나 2중방언사용자들은 한 발언안에서 코드들을 교체하며 1회발언에서 코드들을 변환하거나 혹은 같은 발화(말)에서 두개 코드의 요소들을 혼합한다.

코드변환을 특징짓는 사회언어학적환경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첫째로, 네데를란드와 벨지끄와 같이 언어사용에서 안정되고 장기적인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2중언어사용이 해당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둘째로, 유럽언어들이 토착언어와 함께 행정, 교육, 기타 공공활동분야들에서 공식적인 언어로 쓰이는 환경이 있는데 그러한 환경이 가장 많이 지배되고있는 지역들로서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까리브해지역, 남아메리카지역들이 속한다.

셋째로, 유럽과 북아메리카나라들에 이주민으로 들어와 소수언어집단을 형성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해당 나라의 언어를 배워 2중언어사용자들로 되는 환경이 있다.

이 소수 2중언어사용자집단이 자기들의 민족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3세대가 지나면 해당 나라의 언어어로 완전히 전환한다.

넷째로, 방언소유자들이 교육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자기 언어의 기준으로 되는 표준어(표준방언)를 배워야 하는 환경이 있는데 두 변종사이의 코드변환에 의하여 2중방언사용이 많아진다.

코드변환에 작용하는 사회언어학적환경은 언어내적호상작용에 대비한 언어외적호상작용과 2중언어호상작용에 대비한 단일언어호상작용으로 구분하여볼수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언어외적호상작용은 서로 다른 언어사용자들속에서 진행되며 언어내적호상작용은 같은 언어적배경을 가진 언어사용자들속에서 진행된다.

이 두 호상작용에는 2중언어사용 혹은 단일언어사용이 다 포함될수 있다.

코드변환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로, 담화와 관련된 코드변환이나 혹은 대화적인 코드변환유형이 있다.

다음의 실례에서 뺨스차장은 손님과의 대화에서 스와힐리어로부터 영어로 전환한다.

레: 뺨스차장: Umelipa nauli ya basi?

(Have you paid the bus fare?)

손님: (응답없음)

뺨스차장: Unaenda wapi?

(Where are you going?)

손님: Nafika Jerusalem.

(I'm going to Jerusalem [housing estate])

뺨스차장: *You must always say clearly and loudly where you are going to, Ok?*

우의 실례에서는 두 대화자들사이에 진행되는 담화가 각기 서로 다른 코드를 사용하는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음의 실례에서는 시장판매원과 손님이 서로 가격을 흥정하면서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교체해가며 말한다.

레: 판매원: Habari, mheshimwa. *Have some vegetables.*

(Hello, respected sir.)

손님: Mboga gani? Nipe kabeji hizi. *How much is it?*

(Which vegetables? Give me these cabbages.) ...

판매원: *Five shillings only.*

손님: *That's too much. Sina pesa.*

(I don't have [much] money.)

우의 실례에서는 매 대화자들이 발화과정에 두개의 코드들을 번갈아 사용한다.

둘째로, 대화참가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에 도달할 때까지 한 코드에서 다른 코드로 변환하는 유형이 있다.

다음의 실례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어와 광동말을 사용하는데 아들이 마지막에 영어로 대답하는 경우이다.

레: 어머니: Finished homework?

아들: (응답하지 않음) (2초)

어머니: Steven, yie mo wan sue?

(Steven, do you want to review your lessons?)

아들: (1.5초) I've finished.

셋째로, 언어사용자들이 이야기과정에 언어들을 변환하기때문에 그 어느 언어도 모체언어라고 볼수 없는 경우의 유형이 있다.

모체언어란 코드변환이 진행되는 문장안에서 기본적인 문장구조와 어휘를 가진 언어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들에 언어사용자는 문장들마다 혹은 같은 문장안에서 절들마다에서 코드변환을 자유롭게 진행한다.

레: 기자: Unapenda kufanya kazi yako lini? Mchana au usiku?

(When do you like to do your work? Days or nights?)

간호원: *As I told you, I like my job. Sina ubaguzi wo wote kuhusu wakati ninapofanya kazi. I enjoy working either during the day au usiku yote ni sawa kwangu. Heta family members wangu wamezoea mtindo huu. There is no quarrel at all. Obubi bubulaho.*

(As I told you, I like my job. I have no difficulty at all regarding when I do work. I enjoy working either during the day or at night; all is okay as far as I'm concerned. Even my family members have got used to this plan. There is no quarrel at all. There is no badness.)

우의 실례는 문장안에서 진행되는 코드변환을 보여준다. 이 실례는 케니아의 한 종족 출신의 기자가 나이로비의 어느 한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는 같은 종족출신의 여성과 나누는 이야기의 한토막이다. 간호원은 대화과정에 영어에서 스와힐리어어로 코드변환을 하였을뿐만아니라 자기들이 서로 알고있는 종족어인 르위다코어어로 또다시 코드변환을 진행한다.(영어는 이탈리아체로 되어있으며 르위다코어는 밑줄을 그었음.)

다음의 실례는 에스빠냐어와 영어를 둘 다 사용하는 어느 한 2중언어사용자가 두 언어로 절호상간 변환을 진행하는것을 보여준다.(에스빠냐어는 이탈리아체로 되어있다.)

레: There was a guy, you know, *que* [that] *he se monto* [get up]. He started playing with *congas*, you know, and *se monto y empezo a brincar* [get up and started to jump] and all that shit.

넷째로, 사용중에 있는 언어를 실지로 변화시키지 않는 순간적인 코드변환을 가리키는 유형이 있다.

여기에서는 모체언어로 되는 한 언어에서 대부분의 어휘들과 형태문장구조를 리용하고 여기에 보조언어로 되는 다른 언어의 개별적인 단어들이나 절들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발화가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3개의 구성요소들 즉 두 언어에서 들어온 재료들로 이루어진 혼합구성요소들과 보조언어도, 모체언어도가 있게 된다.

보조언어란 코드변환이 진행되는 문장안에서 기본적인 문장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다만 개별적인 단어나 구, 절로 표현되는 언어를 말하며 언어도란 코드변환이 진행되는 문장안에서 한 언어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를 말한다.

다음의 실례는 스와힐리어로 진행되는 발화속에서 영어말줄기 *decide*와 스와힐리어접사 *-me-*로 이루어진 혼합구성요소들을 보여준다.

레: Hata siku hizi ni-me-decide kwanza kutumia sabuni ya miti.

([But] even these days I've decided first to use bar soap.)

다음의 실례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이루어진 혼합구성요소(ni-ta-try)뿐만아니라 스와힐리어의 모체언어도와 영어의 보조언어도(*throughout the day*)까지 보여준다.

레: Mimi ni-ta-try kuwa nyumbani *throughout the day*

(As for me, I try to be at home *throughout the day*.)

코드변환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진행되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대화자가 목적의식적으로 코드변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대화자가 어떤 내용을 비밀에 붙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코드변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화자가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에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거나 대화상대방의 언어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코드변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화자가 대화상대방과의 특별한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코드변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대화자가 무의식중에 코드변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2중언어사용자들이 저도 모르게 외국어단어나 문장을 바꾸어쓰는것으로 코드변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화자가 말을 하다가 국제적으로 새로 생긴 대상물의 이름을 그 즉시에 자기 민족언어로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 경우 또는 자기 민족어에 그에 대응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코드변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코드변환시 입말에서는 특별한 어조와 간격을 주거나 혹은 서로 다른 속도로 차이를 나타내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코드변환은 다국어사회에서 2중언어사용자들이 여러가지 언어활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효과적인 언어활용수법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언어접촉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언어적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접촉언어학리론을 더욱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